

2015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 연 수 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연수기간 : 2015. 4. 26.(일) ~4. 30.(목) [3박 5일]
- 연 수 자 : 창녕군의회의원 등 17명
[의원 11명, 공무원 6명]



창녕군의회

목 차

1. 연 수 개 요	1
2. 연 수 일 정	2
3. 방문국 주요연왕	3
4. 연 수 내 용	11
5. 연 수 소 감	26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1 연수 개요

■ 여행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여행목적

- 친환경 녹색성장의 선진도시인 싱가포르의 우수한 정책 사례 벤치마킹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 자연환경·문화관광도시 등의 관광시설물 견학과 문화체험을 통하여 우리군의 기존시책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모색과 생태문화관광 도시로 지역주민 연계 소득방안 창출 모색

■ 여행기간 : 2015. 4. 26.(일) ~ 2015. 4. 30.(목) (3박 5일)

■ 여행자 인적사항

구분	직 위	성 명	구분	직 위	성 명	비고
의회의원 (11명)	의 장	손태환	사무직원 (6명)	사 무 과 장	김일찬	
	부 의 장	안홍욱		전 문 위 원	예병규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주		의사담당주사	하회근	
	총 무 위 원 장	박재홍		사 무 직 원	이현숙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재		사 무 직 원	이현중	
	의 원	김우식		사 무 직 원	남효인	
	”	이기호				
	”	장희용				
	”	이철봉				
	”	유영숙				
	”	서경순				

2 연 수 일 정

일자	지 역	교통	주 요 일 정	비고
4/26 (일) 1일차	창녕 김해 홍콩 싱가포르	KA 319 CX 739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녕 출발/김해공항 도착 ·김해공항 출발/홍콩 첵락콕 공항 ·홍콩 첵락콕공항 출발/싱가포르 창이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 ·센토사섬 견학 ·머라이언 공원 견학 	
4/27 (월) 2일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출발/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도착 ·술탄왕릉, 이슬람사원, 원주민마을 견학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출발/싱가포르 도착 ·싱가포르 장애인시설 방문 ·주룽새공원 견학 	
4/28 (화) 3일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혜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계이 부로 습지 보존지 방문 ·싱가포르 출발/인도네시아 바탐 도착 ·바탐시의회 방문 ·중국사원 및 원주민 마을 견학 	
4/29 (수) 4일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혜리호 전용차량 CX 6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바탐섬 출발/싱가포르 도착 ·노인복지시설 방문 ·보타닉 가든 견학 ·싱가포르 창이공항 출발 	
4/30 (목) 5일차	홍콩 김해 창녕	KA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 첵타콕 공항 도착 ·김해공항 도착 ·창녕도착 	

3 방문국 주요 현황



싱가포르

○ 일반 현황

- 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며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였다. 196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건설 당시 유럽인·인도인·말레이인 등 종족별 주거지로 나뉘어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 싱가포르의 옛 명칭인 ‘테마섹(Temasek : 바다의 마을)’에 널리 알려진 전설 속의 동물 ‘머라이언’은 1964년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되어 관광청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젊은 나라인 싱가포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싱가포르 강 입구에 위용을 뽐내고 있다.

인구	540만 명(2013년)
면적	710km ² (서울시 605.5km ² , 약 1.18배)
민족구성	중국계(74.2%), 말레이계(13.3%), 인도계(9.2%), 기타(3.3%)
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기후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
언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시차	우리시간 -1

○ 지 리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싱가포르 섬과 6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싱가포르(Singapore)이며 면적은 712.4km²로 서울시 면적 605.5km²와 비슷하다. 북위 1.09-1.29도, 동경 103.38 - 104.06도에 위치하며,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백37km 떨어져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와는 동서를 잇는 유명한 해상 루트인 말라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조호 수로를 잇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항만 도시 국가이다. 싱가포르 본섬의 서남부는 암석지대로 저습지가 많고 동부지역은 모래가 많아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 정 치

-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직선제하의 내각책임제로 5년 임기의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선의원 87석, 지명의원 9석, 무선거구 3석 등 총 99석으로 구성되어있다. 2011년 5월 7일 총선 결과, 여당(인민행동당, PAP) 81석, 야당(노동자당) 6석 차지했다.

○ 경 제

- 201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US\$ 2,957억이며 1인당 GDP는 US\$ 54,776이다. 경제성장율은 4.1%이며, 대외 교역액은 US\$ 7,745억으로 수출이 US\$ 4,056억, 수입이 US\$ 3,689억이다. 화폐 단위는 싱가포르 달러(Singapore dollar, S\$)이며, 2004년 2월 기준 1USD은 1.27 싱가포르 달러이다.

○ 문 화

- 싱가포르의 인종 구성은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는 물론 멀리 포르투갈까지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인구는 5백 40만 명으로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이고, 종교는 불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무, 주석, 코코넛, 석유, 목재, 쌀, 향료, 커피, 황마 등 각종 산물의 거래시장으로 이 지역의 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관광도 주요산업으로 성장하여 하루 평균 1만4천여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찾고 있다.

○ 기 후

-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연중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 11월~1월 사이는 몬순 시기로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2℃~3℃ 정도 낮아진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31.0℃, 최저기온은 24.1℃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346mm이며 평균 습도가 오후 2시 기준으로 84.2%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8월 8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경제대표부를 개설하여 1971년 7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고, 1975년 8월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양국의 교역액은 2013년 기준 326억 달러로 수출이 223억 달러, 수입이 103억 달러이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수입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한데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 건물을 한국 건설 업체가 건설하였다.



말레이시아

○ 일반 현황

- 아름다운 해변과 크고 작은 섬들과 정글로 뒤덮인 산악 지대와 휴양지가 공존하는 곳인 말레이시아는 15세기 말레이 반도 남부에 말라카 왕국이 세워졌으며, 18세기이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 의해 점령되었고, 19세기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 제2차 세계 대전중 일본 군정하에 있다가 종전후 다시 영국보호령 말라야 연방이 되었다. 1963년 영국 식민지였던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과 사바, 싱가포르까지가 독립 연방국 말레이시아로 되었고,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되어 독립하였다. 예로부터 말레이시아는 동서 문화의 네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와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가 융화, 공존하면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어서 들어온 서구 문화도 말레이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인구	2,884만 명(2012년)
면적	32.9만km ² (한반도의 1.5배)
민족구성	말레이계(60%), 중국계(25%), 인도계(7%),
종교	이슬람교(국교, 종교의 자유 보장), 불교, 힌두교
기후	고온 다습의 열대성 기후
언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시차	우리시간 -1

○ 지 리

-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말레이 반도의 서말레이시아와 보루오섬 북부의 동말레이시아 등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에서도 적도 바로 북단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태일란드, 동쪽으로는 필리핀에 인접해 있다. 13개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고, 주민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많고 그밖에 많은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 치

- 정식 국가명칭은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이며, 국가 형태는 입헌군주제(선임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 경 제

-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3,124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0,428 달러이고, GDP 성장률은 4.2%이다. 대외 교역액은 4,980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은 2,250억 달러, 수입은 2,730억 달러이다.

○ 문 화

-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 언어 등이 다양하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2/3는 이슬람교가 점유하고 있고 원 말레이계는 의무적으로 이슬람교이다. 일부 중국계나 인도, 파키스탄 기타 인종은 고유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지만 중국어, 타미르어, 영어도 사용된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어의 통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 기 후

-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이고, 연평균 기온은 32℃, 연평균 강우량은 2,410mm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23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2년 5월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의 교역액은 2013년 기준 196.8 달러로 수출이 85.9억 달러, 수입이 110.9억 달러이다. 수출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선박, 철강관, 자동차이며, 수입 품목은 LNG, 원유, 반도체 부품, 목재류이다.

인도네시아

○ 일반 현황

- 정식명칭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이다.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말레이제도(諸島)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각 방면에서 문화적·민족적인 교류와 이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명은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언어학자인 J.R.로건이 명명한 것으로 '인도 도서(Indo Nesos)'라는 뜻이다. 현지인들은 중세 때 자바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누산타라(Nusantara)'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데 역시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뜻이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나 1975년 해외식민지를 모두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하자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다가 1999년 8월 분리 독립했다. 행정구역은 30개주(propinsi), 2개 준주(daerah istimewa), 1개 수도구(daerah khusus ibukota)로 되어 있다.

인구	2억 4천만 명(세계 4위)
면적	190만km ² (한반도의 약 9배)
민족구성	자바족(45%), 순다족(13.6%), 등 300여 종족
종교	이슬람교(87%), 개신교(6%), 카톨릭, 힌두교, 불교
기후	고온 다습의 몬순 기후
언어	인도네시아어
시차	우리시간 -2(자카르타 등 서부), 우리시간 -1(발리 등 중부) 우리시간 동일(파푸아 등 동부)

○ 지 리

- 인도네시아의 전체 국토 면적은 190만 km²로 한국의 약 19배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島嶼國)으로 총 17,508개의 섬이 있으며 이 중 무인도는 7,133개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도서(島嶼)는 자바(Java)와 칼리만탄(Kalimantan), 수마트라(Sumatra), 술라웨시(Sulawesi), 이전에는 이리안자야(Irian jaya)라고 불렀던 파푸아(Papua) 등이다.

○ 정 치

-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이며, 인도네시아의 입법부는 양원제와 유사한 이원적 조직인데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560명과 지역대표협의회 의원 132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과 지역대표협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협의회는 총괄 기구로써 기능하는데 총 구성원은 692명이다.

○ 경 제

- 201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8,703억 달러이며, 1인당 GDP은 3,510달러이다. 경제성장율은 5.8%이며 대외 교역량은 3,692달러로 이 중 수출은 1,826억 달러, 수입은 1,866억 달러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망간, 동, 니켈, 금, 은, 고무 등이다.

○ 기 후

-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열대성 몬순기후로 고온다습하다. 연평균 기온은 25℃~28℃이며, 습도는 73%~87%이다. 수도인 자카르타의 연평균 기온은 32℃~33℃이다. 우기는 11월~2월이며, 건기는 3월~10월이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라니냐 현상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건기가 줄어들고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8일 외교관계를 맺었다. 양국의 교역액은 2012년 기준 269억 달러로 수출이 139억 달러, 수입이 157억 달러이다. 수출 품목은 경유, 금속, 철강관, 전자전기제품 등이며, 수입 품목은 가스, 원유, 석탄, 동광, 펄프, 목재 등이다.



4 연 수 내 용

싱가포르 센토사섬

○ 방문일 : 2015. 4. 26.(일)

○ 내 용

- 싱가포르 남부에 있는 섬이다.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크기는 동서길이 4km, 남북길이 1.6km이다. 지명은 말레이어(語)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 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해양수족관인 언더워터월드와 음악 분수 등이 있다.
- 센토사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순환버스 등으로 주요시설과 관람객을 연결 운송하여 손쉽게 모든 곳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센토사섬 내 스카이다워는 지상으로 부터 약 130미터 상공까지 회전하며 상승하는 기구로써 한눈에 센토사는 물론, 싱가포르 전역까지 360도의 파노라마 전망이 가능한 곳이다.



▲ 센토사섬 스카이 타워 체험



▲ 스카이다워에서 바라본 싱가포르 항과 센토사섬 전경

- 아시안빌리지에서는 각 민족별 예술품과 전통음식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희귀석박물관·싱가포르역사박물관·해양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있다. 남쪽 해안에는 실로소·센트럴·탄중해변 등의 휴양시설이 있고, 각종 해양 스포츠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 센토사섬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지답게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특히 케이블카, 모노레일, 순환 버스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윤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 또한, 섬 전체가 휴식공간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 아름다운 비치에는 자연적인 바다모래가 형성되지 않아 매년 인도 등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모래를 구입하고 인공해변을 만드는 등 관광객을 배려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관광객을 위한 끈임 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이 쇠퇴해져가는 항구를 쾌적한 휴양지로 바꾼 비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 싱가포르 머라이언 공원

○ 방문일 : 2015. 4. 26.(일)

○ 내 용

- 1972년 9월 15일 오후 8시 45분에 이광요 수상이 제막 버튼을 눌러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머라이언 동상은 상반신은 싱가포르 국명의 유래인 ‘싱가(산스크리트어로 라이온을 뜻한다)’를 뜻하는 사자(Lion), 하반신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인어(Mermaid)로 위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상상속의 동물을 동상으로 만든 것이다.

- 머라이언 동상에는 두 개의 얼굴, 즉 낮과 밤의 얼굴이 있다. 낮에는 싱가포르를 오가는 배와 푸르게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늙름한 수사자의 모습을 보여 주지만, 밤이 되면 아늑한 조명을 받으며 요염하면서도 편안한 암 라이온의 신비로운 자태를 보여준다.
- 머라이언 공원은 싱가포르의 다른 공원들처럼 화려하지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 왔다는 증표를 남기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그 나라, 그 도시를 나타내주는 랜드마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 또한, 바다와 어우러진 건물의 배치 역시 머라이언 공원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머라이언 동상 너머에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만들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건물이 있다. “21세기 현대건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그것이다. 두 장의 카드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형상을 본 떠 디자인된 3개의 건물과 지상 200m의 높이에서 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최고 52도로 ‘피사의 사탑’보다 10배 더 기울어진 채 하늘로 올라가는 동측 건물이 지상 70m 공중에서 서측 건물과 만나 57층의 스카이파크까지 함께 뻗어가는 형상을 실현한 것은 ‘21세기 현대건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머라이언 공원의 머라이언상과 바다 건너 보이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 말레이시아 술탄왕릉 · 원주민 마을 · 이슬람 사원

○ 방문일 : 2015. 4. 27.(월)

○ 내 용

-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조호르주의 주도로 말레이시아에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말레이어로 조호르는 “보석”을 의미하며, 바루는 “새로운” 의미이다. 조호르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싱가포르 가까이 있어 왕래가 활발하다.
- 조호바루시는 싱가포르에서 북쪽 조호르 해협의 연육 도로를 건너서 부터이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출입국 절차에 따라 짐 검사, 여권 검사 등을 거쳐 도착할 수 있었다.
- 조호바루에 도착하여 우리나라의 공동묘지에 가까운 부유층의 무덤 서민들의 무덤을 돌아보고, 주변에 위치한 민속마을에서 민속춤과 민속 악기 연주를 볼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조호바루시에서 가장 큰 이슬람사원 술탄 아부 바카르 모스크(Sultan Abu Bakar Mosque)로 자리를 이동 하였다.
- 술탄 아부 바카르 사원은 아부 바카르 술탄이 사망한 후 몇 년 뒤인 1900년에 완성되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사원의 이름을 지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중 한 곳인 이 사원은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기 까지 총 8년이란 기간이 걸렸으며, 2000여명의 참배객을 수용할 수 있다. 야자수가 하늘거리는 남국의 푸른 하늘에 우뚝 서보면 싱가포르가 보이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미나렛이 인상적이다. 현재는 내부를 입장할 수는 없고 외관만 감상할 수 있었다.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중 한 곳인 술탄 아부 바카르 사원



▲ 술탄 아부 바카르 사원에서 바라보이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장애인 시설

- 메타 지적장애인 센터 (Metta Day Activity Centre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 방문일 : 2015. 4. 27.(월)

○ 내 용

- 1995년 메타 복지 협회가 설립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메타 복지 협회가 싱가포르 전체에서 운영하고 시설은 9군데로 지적장애, 중풍 또는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이곳은 지적장애인을 위해 설립되었다.
- 18세에서 55세까지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지적장애인으로 판명되면 본 시설 이용 가능하다. 다운증후군, 자폐증, 발달장애 등을 가진 지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 현재 40명 정원에 3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증 지적장애인을 위한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사항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 6개월 마다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해 호전상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위해 시설 이용 장애인들 개개인에 대해 모두 다른 현실적인 표준을 세우고 매일 향상 정도를 기록하고 감독한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등록자의 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 장애인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체온을 측정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점이 돋보였다.



○ 질의답변

Q 이 곳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지?

A 싱가포르 영주권자, 시민권자, 구체적인 재활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나 사회복지사,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에이전시를 통해 들어오고, 환자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Q 시설에 직원을 얼마나 있는지?

A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책임자 1명, 트레이너 5명, 식당직원 2명, 운전수 1명, 비서 1명이다.

Q 정부보조금은 얼마나 지원 되며,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A 정확하게 정부보조가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없다. 각 가정의 수입을 조사하여 거기에 따른 비율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정부보조 외에는 본인부담이다.

Q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A 18세부터 55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빵을 굽는다든지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고용하는 회사가 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도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Q 3월에 가족이벤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으며 1년에 몇 번 실시하는지?

A 일종의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소에서 열린 것은 아니고 시메이라는 곳에 메타헤드코트(불교협회 헤드코트)에서 실시했다. 가족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음식, 옷, 신발 등을 판매하는데 그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기부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옷 10달러를 판매하면 5달러는 본인 수입, 나머지 5달러는 기부하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이벤트에 참가하여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길 수 있다. 이 행사는 1년에 한번 있으며 7월에는 다른 성격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Q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은 있는지?

A 싱가포르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부분 자선단체에서 운영한다.

■ 싱가포르 주룡 새공원

○ 방문일 : 2015. 4. 27.(월)

○ 내 용

- 약 600종, 8,000마리의 새들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공원이다.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로 싱가포르의 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가 그곳의 거대 새장을 보고 착안하여 공업 단지였던 주룡 타운을 자연 공간으로 변모시켰다고 한다.
- 관광지로 더 유명한 곳이지만 새 병원, 조류 연구 보존 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조류를 보호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 주룡 새공원에는 전 세계의 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20ha에 달하는 드넓은 숲에 마련된 새들의 천국에서 펭귄, 홍학, 코뿔새, 앨버트로스, 펠리컨, 앵무새, 진홍잉꼬새, 찌르레기 등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새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새들도 마치 자연의 원시림 속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활기 넘치는 날갯짓을 보여 준다.
- 또한, 새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마련되어 있어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는 조련사와 함께 매, 독수리 등 육식성 새들이 출연하는 ‘맹금류 쇼’를 관람하였다. TV로만 볼 수 있었던 무서운 맹금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스릴이 넘쳤다. 관람객들이 직접 쇼에 참여하도록 지원자를 받아 맹금류를 팔에 올려 주기도 했다.

- 새공원을 관람할 때 새공원의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파노레일'을 타면 공원 전체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주룡 새공원 내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다. 공원 곳곳에 레스토랑, 매점, 휴게소, 기념품점 등 각종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 주룡 새공원은 입장부터 숲 속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대한 나무와 돌을 자연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를 지극히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았다. 케이지 외부는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케이지(새장)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케이지 내부 역시 다양한 크기의 나무와 돌로 숲처럼 꾸며 최대한 자연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백조, 홍학 등 창살 없는 케이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새들도 있어서 마치 자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 우리 군도 앞으로 따오기 개체가 100마리로 증가하면 탐방객들에게 우포따오기복원센터를 개방할 계획에 있다. 주룡 새공원처럼 자연 친화적인 번식케이지를 조성하면 따오기의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



▲ 창살 없는 케이지(홍학)



▲ 케이지 외부 모습



▲ 새 공연 (맹금류쇼)



▲ 새 상징물 앞 기념촬영

■ 싱가포르 송게이 부로 습지 보존지

○ 방문일 : 2015. 4. 28.(화)

○ 내 용

-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세계 습지 중 하나로 싱가포르 북서쪽 87만 평방미터 면적의 광활한 습지대에 펼쳐진 송게이 부로 습지 보존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 지역으로 보존 및 연구 가치가 높다.
- 1989년 정부에 의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송게이 부로 습지 보존지는 1993년 공식적으로 개장했으며, 지원을 받아 아름다운 공간과 다양한 자연, 야생생물을 보존하고 있다.
- 국립공원이사회는 습지의 보전, 교육, 레크리에이션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와 연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습지 보존·생물다양성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센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비즈니스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도 되어있어 회의 및 컨벤션, 이벤트, 레크리에이션 등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한다.
- 송게이 부로 습지 초입과 연결된 이채로운 건물은 큰 규모의 단체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습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습지를 관찰하기 전이나 관찰한 후에 자연스럽게 모여 학습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 습지 곳곳에 철새 관찰을 위한 전망대가 원·근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철새나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기에 좋았고,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질문이 담긴 안내판을 주차장에서 습지입구까지 가는 곳곳에 설치해 습지방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여 주었다.
- 습지 탐방로는 80%가 나무 그늘이었는데 나무를 수시로 관리해주는 듯 잘 정돈돼 있었다.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전망대와 건물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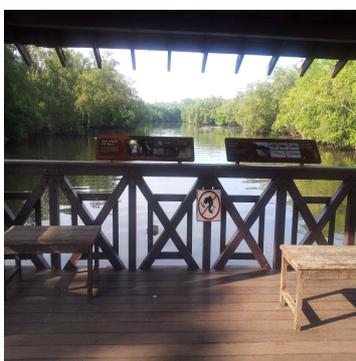


▲ 습지 입구에 만날 수 있는 건물 - 습지에 대한 학습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물의 측면 모습 - 개방형 창문과 건물을 둘러싼 물이 시원함과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준다.



◀ 주자창부터 습지 입구까지 세워진 안내판 - 철새에 대한 질문으로 만들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습지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



▲ 야생동물이나 철새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여러 가지 모양의 전망대

■ 인도네시아 바탐시의회

○ 방문일 : 2015. 4. 28.(화)

○ 내 용



- 바탐섬은 싱가포르에서 동남쪽으로 불과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 섬으로 싱가포르에서 페리를 타면 약 45분 정도 걸린다. 바탐은 서울의 2/3의 면적인 415km²으로 수마트라 동부 빠탄섬이 있는 리아우 주에서 비교적 큰 섬에 속한다.
- 바탐시는 12지구와 6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30만명이다. 조선업, 중공업, 관광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수입은 800만 달러라고 한다.
- 시의회는 의장과 시의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5년이며, 9개의 정치정당이 활동 중이다. 4개의 시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의회가 법과 정치 시의회, 두 번째가 경제와 금융 시의회, 세 번째가 환경과 부대시설 개발 시의회, 네 번째가 인재개발 시의회이다.
- 시의원의 연봉이 약 2억 4천만 루디아, US달러로 2만 4천 달러라고 한다. 상위 1%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바탐시 인구 1인당 평균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 5~60만원인 것에 비해 시의원의 지위가 그만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질의답변

Q 바탐시의 지자체 수입이 800만 달러라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A 1년 예산이 총 2,400만 달러로 지자체 수입 8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지금 바탐시는 개발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으로 가능한가?

A 바탐시에는 중앙정부 대표가 있는데 중앙정부 대표에게 투자나 개발 부분에 대한 특권이 있다. 지자체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느리다.

Q 바탐시의 순수하게 귀속되는 지방세는 무엇이 있는가?

A 바탐시에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세금은 모두 지방정부로 귀속된다. 지하자원수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나누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은 지자체에 귀속된다. 지하자원은 석유, 가스가 있다.

Q 연간 회기일수는 얼마인가?

A 정해진 회기 일수는 없다. 평균 일주일에 2~3번 모인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매일 매일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다.

Q 우리나라에는 금연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금연이 자유로워 보이는데 어떠한가?

A 인도네시아는 각 지역마다 금연법이 다르다. 바탐시도 올해 금연법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중국사원과 원주민 마을

○ 방문일 : 2015. 4. 28.(화)

○ 내 용

- 인도네시아 바탐시에 있는 중국사원은 관훈장과 부처님을 모시는 복합적인 중국식 사찰이다. 힌두교와 회교도 나라에서 불교, 도교, 유교가 합쳐진 사원이 존재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 바탐시의 마지막 방문지는 마을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주민 마을로 민속춤과 민속악기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의 운영은 방문객들에게 바나나와 야자수, 커피를 팔아 운영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중곡사원



▲ 인도네시아 원주민 마을

싱가포르 노인복지시설

- SOCIETY FOR THE AGED SICK

○ 방문일 : 2015. 4. 29.(수)

○ 내 용

- 1965년도에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은 NCSS(사회봉사협의회) 산하 비영리 단체로 자선단체의 자금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싱가포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며, 관할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들어올 수 있고, 가정의 수입상황에 따라 정부 보조를 지원받게 된다.
- 1999년 1월 건물 증축으로 4층 건물에 총 침대 244개를 보유하게 되었고 빈곤한 노인 환자를 위한 주거 공간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환기와 밝은 이미지라고 한다. 건물 복도의 천정을 밝은 유리로 만들어 빛이 들어오면서도 비를 피하게 만들었고, 건물의 벽면 대부분을 오픈형으로 만들어 햇빛과 비를 막으면서도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병원 내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복도 천정을 유리로 만들어 밝은 분위기 조성

▲ 건물외벽을 오픈형으로 만들어 환기에 중점을 둬

○ 질의답변

Q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거 같다. 이유가 있는가?

A 기본적으로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1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처음부터 걸을 수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고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에이전시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40살 된 사람은 교통사고로 들어왔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왔다. 현재 105살 환자가 가장 나이가 많다.

Q 정부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A 정부보조가 95%, 본인부담이 5~10%정도 된다.

Q 환자수와 간호사 및 복지사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A 환자는 404명이 현재 있으며,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180명이다. 그 중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는 36명이며, 다른 나라에서 간호사 자격이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간호보조사가 100명 트레이너나 보조로 일하는 사람이 50명이다.

Q 근무 여건은 어떠한가?

A 다른 일반기업에 비교한다면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일할 수 없고 노인들을 위해 일한다는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3년 전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임금을 조정을 해줬다. 그렇다고 다른 곳과 비교할 만큼은 아니지만 감사하게 생각한다.

■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 방문일 : 2015. 4. 29.(수)

○ 내 용

- 1859년 설립된 보타닉 가든은 광대한 부지에 수만 그루의 수목이 무성한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리완유 당시 총리의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를 푸른 정원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도심의 오아시스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3,000여 종이 넘는 희귀 난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국립 난초 정원만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받지 않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중 휴일 없이 운영되며, 연간 4백만 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 2013년 온라인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 공원의 공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싱가포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잘 정비된 보타닉 가든은 공원과 식물원이 공존하는 느낌이었다. ‘그린 앤 클린 시티(Green & Clean City)’ 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5 연 수 소 감

총 무 위 원 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사회복지 분야

-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와 닿았던 것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작은 부분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 첫째 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은 센토사섬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센토사섬에 도착했을 때 계단 옆에 창고 같은 네모난 문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궁금했었다. 알고 보니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간이 엘리베이터였다. 1층도 안 되는 높이였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걷기 힘든 노약자들을 배려해 간이 승강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약자를 배려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 그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렀을 때, 아주 작은 식당이었지만 유아들이 먹을 수 있는 유아용 의자를 모두 비치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일정규모의 식당에 가야지만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둘째 날,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방문자들의 열을 체크하는 것이었다. 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마지막 날, 노인복지시설 역시 병원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위해 환기와 밝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었고, 병원 내 모든 승강기를 크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부분이 실천되고, 그 실천이 모일 때 진정한 사회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는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닌 거 같다. 깨끗한 정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창녕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센토사섬의 간이 엘리베이터 - 1층도 안 되는 높이였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두었다.**



▲ **10평 남짓한 작은 식당에도 비치되어 있던 유아용 식탁 의자**

■ 푸른 정원의 도시 싱가포르 - 생태관광 분야

- 싱가포르에서 눈여겨 본 방문지는 주룽 새공원과 보타닉 가든, 그리고 우리 창녕의 우포늪과 같이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송계이 부로 습지였다. 생태관광분야는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에 싱가포르에서 보게 될 공원과 습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역시 싱가포르는 푸른 정원의 도시였다.
- 먼저, 주룽 새공원과 송계이 부로 습지, 보타닉 가든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잘 관리되고 보존되어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주룽 새공원과 보타닉 가든은 조성된 공원임에도 최대한 자연 속에 온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고, 송계이 부로 습지 역시 자연 그대로 습지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관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마치 모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힘들 때면 자연을 찾고 그 속에서 휴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듯하다. 싱가포르 공원 방문을 통해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이 어찌면 가장 공격적인 관광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 우리 군의 우포늪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전망대의 설치와 습지를 탐방하는 탐방로 주변의 환경정비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연이 준 선물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우포늪을 자연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

■ 그린 앤 클린 시티(Green & Clean City) 싱가포르 - 환경 분야

- 싱가포르의 '그린 앤 클린 시티(Green & Clean City)' 대로 어디를 방문하든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 싱가포르의 3C 정책이라고 하여 깨끗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깨끗한 물(Clean Water), 깨끗한 거리(Clean Street), 깨끗한 공직사회(Clean Administration)를 말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 정부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질서유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벌금 제도를 실시하여 오늘날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 약국에서 치료용 껌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껌 자체를 팔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침 뱉기, 노상방뇨 등 우리가 흔히 벌금을 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 이런 사실을 알고 가서 일까,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고 나서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있던 간이 화장실에 시선이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이나 시설물에 고정적으로 세워져 있는 간이화장실이 더러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디서 관리하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싱가포르 간이 화장실 - 문을 열면 왼편에는 변기가 오른편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다. 깨끗이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 간이 화장실은 정말 깨끗했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청소를 하는 관리자도 볼 수 있었다. 소독약품을 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했는데 시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 연락처를 커다랗게 붙여두어 언제든지 화장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알릴 수 있게 해 놓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 그리고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도 주차 즉시 시동을 꺼 매연 발생을 줄여야한다고 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깨끗한 거리(Clean Street)’ 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거리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재활용, 재사용이 답이다. - 자원 분야

- 싱가포르의 열대지방이지만 여행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24시간 선선한 실내에서 입을 카디건이다. 밖은 후텁지근하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어도 건물 안은 어디나 시원하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전력난으로 고민이 많은데 천연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지 궁금했다.
- 싱가포르는 100% 연료(석유, 천연가스)를 주변국가에서 수입하지만 모든 건물에 자체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력을 재사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고 한다.
- 또한, 물도 100% 재사용 한다. 빗물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강과 운하 초대형 지하관에 모아 수처리 공장으로 보내져 1급수의 생활용수로 사용된다. 특히, NeWater라는 물은 하수(폐수)를 정수해서 먹는 물로 바꾸는 것이다.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야 했기에,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낭비가 없고 최대한 재사용을 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관리매니저가 시설에서 나오는 박스라든지 귀저기 같은 쓰레기 재활용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했다. 정부보조와 개인부담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금만 노력하여 재활용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매니저의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았다.
- 우리나라도 전력 부족, 물 부족의 현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으니 오히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온 것 같다. 우리도 미래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연수에서는 일정 상 싱가포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한 번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연수보고를 마치며...

- 잘 짜인 완벽한 도시,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도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부,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말할 때면 꼭 따라 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리고 동남아의 세계적 항구도시이자 기초생활 질서가 엄격해 벌금이 많이 부과되는 나라, 그래서 거리가 깨끗한 도시였다.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3분의 2정도 되는 면적에 인구 54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도시국가이고 천연자원, 유구한 역사와 문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나라지만 이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얼마 전 타계한 이광요 총리의 개혁정책과 함께 자신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살릴 줄 아는 국민들의 힘인 것 같다.
- 그리고, 이러한 힘이 생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가 먼저 깨끗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싱가포르의 어느 부분을 봐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깨끗함과 정직이었다. 경제적 경쟁력 역시 품질과 정직에 두고 있었고, 각종 사회시설과 환경에서도 깨끗함과 배려가 돋보였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자한 정부가 먼저 깨끗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신뢰가 모여 국제적 명성의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의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창녕군민이 있다. 연수보고를 마치며 여러 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통해 우리 군민에게 행복을 드려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신뢰받는 깨끗한 의회로 우리 창녕군민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 3박 5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기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잠시나마 예전의 우리나라의 모습도 생각해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연수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